

# 소비자가 바라는 인삼약초의 안정성 확보 방안

김 동 철  
조선일보 편집부 국장

## ♣인삼은 만병통치약(?)인가

<기(氣)와 혈(血)의 조화를 통한 혈액순환에 좋고 심장기능을 강화시켜 정신병,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으며 폐기능을 보강해서 호흡기질환에 예방효과가 있다. 또 위장을 다스려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는다.>

우리나라 인삼의 효능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다. 일반 소비자라면 인삼의 효능에 대한 위와 같은 상식수준(?)의 내용은 거의 알고 있을 것이다.

하지만 과연 인삼이 <만병통치약>처럼 그렇게 효능이 좋은 것인지, 또 누구나에게 모두 들어맞는 <만병통치약>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자료분석과 함께 대 국민(소비자)홍보가 앞

서야 할 것이다.

## 첫째, 인삼의 부작용은 없는가?

### 한의학 전문의의 말을 빌려보자.

<인삼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 보통 얼굴의 홍조, 둔중감, 가벼운 두통, 갈증, 가벼운 안구충혈, 피부반진, 구건(입이 마르는 것)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면, 인삼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. 부작용의 원인은 체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. 한의학에서는 소양인은 체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.

하지만 보통체격 마른편, 피부백색 또는 황색, 내성적 경향, 식사랑이 저고 소화기능이 약한자, 손발차고 추위를 잘 타는 사람,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고 물을 잘

찾지 않는 사람, 즉 소음인의 체질에는 잘 맞는다.>

흔히 열이 있고 몸이 뜨거운 사람은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<맛다. 두통이나 입마름, 가슴 답답함, 코피, 안면상열감, 불면, 변비,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부작용이다. 손발이 뜨겁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피해야 한다.>

## 그러면 홍삼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.

<홍삼은 인삼을 썬서 효과를 높인 것으로 인삼보다 효과가 부드러우며 소음인에게 효과적이다. 중추신경 진정작용, 흥분작용, 고혈압-동맥경화 이완작용,



조혈작용, 간보호, 성기능향진효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. 홍삼은 인삼과 달리 부작용이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.)

**인삼이 비아그라의 대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인가.**

고개속인 남성의 발기부전치료에 인삼이 비아그라보다 싸고 효과도 좋다, 그래서 대안 상품이 다라는 통설이 나돌자, 인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.

〈사포닌이 포함된 인삼은 산화질소효과를 내기 때문에 강장제

라고 할 수 있다. 하지만 대안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. 미국의 경우 허브로 분류돼 일반 건강식품 가게에서 팔리고 있다. 하지만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. 또 비아그라의 대안상품인가라는 것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. 일부 상인들은 인삼 1백 캡슐들이 한병 가격이 3~4만원(20달러)인데 비해 비아그라는 1정의 가격이 8달러이므로, 30~40 정도의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. 따라서 인삼이 비아그라의 대용품이라

고 선전하는데 이 역시 과학적 근거와 검증과정을 설명한 자료가 첨부돼야 우리나라 인삼이 국제무대에서 명실상부한 강장제로서 역할과 국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본다.〉